표정관리 중단하고 티내며 살자

(마5:17-43)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표정관리 중단하고 티내며 살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표정관리와 티내는 것은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마음에 생생하게 되새기는 마음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맞선장면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레스토랑 문이 열리면서 남자가 한 사람 들어오는데 멀리서 봐도 훤칠하고 옷을 입은 맵시가 나고 얼굴이 환한데다가 가까이 오는데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첫눈에 반해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백이면 백 여자들이 하는 일이 표정관리에 들어갑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만 표정까지 그게 나타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애써 태연한 척하고, 안 본 척 하고, 괜히 시계 보고, 컵을 들어서 물을 마시기도 하

고 있는데, 남자가 가까이 서서 '혹시 아무개십니까?' 하고 물어볼 때에 얼굴이 딱 마주치는데 표정관리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가 느끼지요.
이제는 티가 나는 겁니다, 표정관리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티가 나게 되는 거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괜히 웃어요, 장사가 잘되니 티가 나는 겁니다.
고객들 앞에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얼굴에 우울한 티가 납니다, 우울한 기색이 보여요.
티라는 게 기색 아닙니까?

자, 표정관리 그만 하고 이제 그만 티를 팍팍 내며 살자!
내 마음에 생긴 이 기색이 그대로 마음 놓고 드러날 수 있게끔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하고 거칠 것이 없는 삶이 되겠습니까?
마음 놓고 티를 내며 살 수만 있다면, 티를 내도 괜찮은 그런 티를 내며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십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으로 일등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 의(義), 즉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잘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또 사도바울이나 루터의 얘기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마태는 지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일등으로 잘 지키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야 된다, 그러면 더 나은 상태란 어떤 것인가 하면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완전하다는 것은 충만해진 것을 의미 합니다.
'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상황을 가만 들여다보면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

분이 있었는데 내가 와서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 구원을 허락한다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그들이 지키는 것에서 모자란 부분, 채워지지 못한 부분까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놓고 말씀하신 것이 48절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않은 것으로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위해 완성된 조건을 채웠다고 볼 수가 없다. 형제를 대하여 분노하느냐?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 구원은 없다.'
'그리고 형제를 대해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보 골이 텅 빈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 대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자나 인정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제일 지독한 멍텅구리를 향해 하는 말이 '미련한 자'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속으로 형제를 향하여 욕만 해도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으로 판명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도 못 지키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확인되는 모자라는 점까지 채우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상수훈은 우리의 실제생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따로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에 관한 신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산상수훈이 중요하다 어쩌다 온갖 찬양은 다 하는데도 산상수훈대로 살고 있는 모습도,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도 없어요.
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입장에서 봐도 너무 이상적입니다, 너무 ideal 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해라는 거예요.
전혀 이상적으로 보여 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서 율법의 연장선에서 이것을 이해하면 큰 오해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 화가 나는데도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형제를 향해 욕하고 싶은데도 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보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는 행동을 한 것과 똑같이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

요.
내 돈 떼먹은 원수에게 화가 나고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원수 갚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오른편 뺨을 맞는다, 대부분 오른손잡이인데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것은 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손등으로 쳐야 되는데 이게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굴욕적으로 맞았을 때, 손등으로 쳤으니까 손바닥으로 왼편 뺨을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들이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이대면서 살 것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듯이 지키며 살아가라는,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나라의 법을 지키고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고…
이게 인간의 죄성과 부패함을 염두에 두면 다 표정관리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살인을 안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안 했다고 해서 내 속의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다 그 상황이 주어지면, 사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아버지 죽이고 내 아내와 자식들을 무참히 죽였으면 내 마음에서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단지 죽이는 행동을 안 하는 것뿐이지요.
티를 안 내는 거예요, 티를.
티를 안 내려고 하니 표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세금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국세청에서 쳐들어올까봐 할 수 없이 세금 냅니다.
표정관리 하는 거예요.

준법이라는 게 인간 속에 죄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표정관리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주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형제를 살인하지 않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까지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제는 티를 내며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티내며 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을 티내고, 간음하고 싶은 마음 티내고, 이렇게 다 티를 내며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십자가복음을 전제로 해서 티를 내며 살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 뒤에 이제 더 이상 표정관리 차원의 삶을 살지 말고 -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과 표정이 따로 놀려니까 - '이제 그러지 말고 마음과 표정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 표정에 티가 팍팍 나게 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된 자들에게 왜 티내며 사는 삶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분노가 없어집니다.
내 돈을 떼먹은 원수를 향한 원망이 없어집니다.
예쁜 여자를 보고도 마음에 음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티가 나는데 그 티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살인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화도 안 내게 된다 이겁니다.
어떤 여자를 봐도 음욕이 안 생기게 된다 이거예요, 그냥 티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시된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를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듯이 마음속에 지니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24시간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내 눈앞에 내 귀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떤 상황이 들려지더라도 이 세상에서 몸으로 만나는 어떤 상황보다 먼저 십자가를 보라고 십자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과 사건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봐야 되고 언제나 봐야 되고,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십자가사건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사건을 보고 있을 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상황보다 먼저 십자가를 보고 있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도달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마음이 간섭을 못하니까 죽은 것 아닙니까?
자식의 일이건 돈에 관한 일이건 건강의 일이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건강의 이상보다 먼저 십

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 마음이 오갈 데 없어서 요동질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십자가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천국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을 때 저쪽에서 고기를 몰아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차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보게 되면 마음이 천국으로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만 그래요, 다른 이외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만이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에 우리 마음이 풍덩 빠지게 되면 천국에 빠진 티가 우리 마음을 통하여 우리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48절까지.
천국에 마음이 풍덩 빠지게 될 때, 형제를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 형제를 향하여 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의 티가 난다는 거예요, 천국의 티가.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그리고 43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무 적합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테반이 알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돌로 쳐 죽이고 있어요.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 원수에 대한 일상적인 마음, 다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놈이다-하나님이 살아계신 지 모르니까 돌로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화가 나서 욕을 하지도 않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죄 없이 죽어갈 수 있느냐' 하며 던진 돌을 주워서 다시 던지지도 않고,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그냥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면서 스테반 집사님이 죽으십니다.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자기를 돌로 치는 형제들을 향하여 막 분노가 솟구치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머리의 뚜껑이 열릴 만큼 분노가 치미는데도 산상수훈의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그 와중에 자기의 분노를 삭인 겁니까?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산상수훈을 기억하면서 스테반이 원수를 쳐 죽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표정관리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죽이고 싶은 놈이 있는데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때문에 표정관리에 들어가서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이 막 동합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표정관리에 들어가서 간음을 안 한 겁니다.
마음은 이미 예수님이 보실 때 간음을 백 번도 더 했어요.
단지 표정관리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자꾸 동쪽으로 치우치려고 충동적으로 달려가려 하고 있는데 서쪽으로 끌고 가라는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는 것이고, 그건 이단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다 뭡니까?
'너희가 내가 이루게 될 십자가사건 속에서 24시간 그 십자가에 죽은 나와 연합해서 이 세상

에서 죽게 될 때, 다시 말해 너희의 마음이 이 세상 그 어느 것에도 지불되지 않고 있을 때, 너희 마음은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이 하늘을 느끼게 될 때 너희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근거되지 않는 평강이 주어지면, 형제들이 너희 앞에서 어떤 원수 짓을 해도 너희가 그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은 천국에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천국 티가 나게 될 것이다.'

'천국 티가 나면 예쁜 여자를 봐도 음욕이 안 생길 것이다, 음욕이 생긴다면 너희가 십자가를 보고 있는 시간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일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천국을 보고 있으면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스테반이 티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납니다.

원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그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계시고 인자, 그 사랑하던 주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계신 것을 스테반이 봅니다.

그 하늘을 본 뒤에 마음이 하늘에 가있는 티를 낸 것이 원수를 위해 기도한 것이고 얼굴이 천사와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티내며 살라는 거예요.

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스물 네 시간 붙잡아야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십자가를 외치고 있는 저도 아무 상관없는 뉴스를 보면서도 십자가를 마음에서 놓치고 있으면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을 향해서도 분노합니다, 그 정치인이 직접 나에게 원수 노릇을 한 것이 아닌데도.

하여간 십자가를 놓치는 구멍이 생기면 반드시 마찬가지로 세상 티가 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예쁜 여자를 본 티를 내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분노가 생긴다, 이 세상의 삶의 정황에 마음을 담고 있는 티가 나는 겁니다.

마음이 담겨진 곳에서 반드시 티가 나게 돼있어요.

맞선 남자를 보면서 후끈거립니다, 마음이 그 남자에게 가닿았기 때문에 거기서 티가 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24시간 바라보며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반드시 약속에 따라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갑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천국이 느껴지면서 이상하게도 이 세상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호연지기가 생깁니다.
거칠 것이 없는 기개가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가난하던 부하던, 먹을 끼니가 있건 없건, 티가 납니다, 티가.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상황을 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부티를 냅니다, 세상 티를 내는 거예요.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빈티를 냅니다, 세상 티를 내는 거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티내며 살자!'
'단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속의 죄가 자꾸 이 세상 것을 사랑해서 세상 것을 마음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만 죽인다면, 너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니까, 하늘에 올라간 마음이 하늘을 느끼는 대로 티내며 살자!'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맹세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마음에 붙잡고 내가 뜻하려 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이루려 하는 이게 바로 맹세라는 겁니다, 이 세상일에 대해 결심하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해 세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을 때 어떤 티가 나느냐?
아무 의욕이 없어요, 단지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의욕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천국에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볼 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 이외의 말은 나오게 되지를 않습니다.
하게 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고 너희의 행동거지와 너희의 마음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면 너희가 내가 이루어놓을 십자가복음사건

속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와 연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고, 믿음이란 그 십자가에서 죽은 나와 24시간 연합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을 조금도 지불하지 않게 죽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내가 주려는 것은 그 천국이다, 지금 가질 수 있는 천당을 주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을 주시려 하는 겁니다, 천국을.
그랬을 때에 천국에 마음이 가 있는 자들에게는 가난하건 부하건,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때로는 병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티가 날 것이다, 천국의 티가 반드시 날 것이다.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일으키는 대로 반드시 천국의 티가 날 것이다.
그 티 나는 모양을 가르쳐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그 티 나는 모양이에요.
이대로 우리가 애써서 행하라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마음이 가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티를 내는 것이지 표정관리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율법은 죄악 되고 부패된 심성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라, 표정관리를 하라는 말씀이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은 '십자가사건을 통하여 마음이 천국에 간 자들이 이제는 천국의 티를 내며 살아라, 표정관리의 세상을 이제는 끝내라'라는 말씀이라는 이야깁니다.

표정관리와 천국의 티를 내는 것,
그리고 표정관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 세상 티를 내는 것,
세상 티, 천국 티, 세상에서의 표정관리.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시면서 표정관리도 아니고 세상 티도 아니고 십자가가 24시간 내 마음에 붙어 있는 동안에 마음이 천국으로 가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천국 티내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그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표정관리 하느라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온갖 죄악 됨과 부패됨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따라 살면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가고 붙잡히고 망할 것을 두려워해서 표정관리 하며 살아갑니다.
겨우 겨우 근근이 표정관리로 체면유지하고 사는 이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끼어들어온 것은 천국에 마음이 담겨서 천국 티내며 거칠 것이 없이 살게 해주시기 위함임을 알고 이제부터 표정관리의 부담되고 죄악 된 삶을 중단하고, 천국 티를 팍팍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호연지기가 오늘 하루 종일 내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